

<b>안 그래픽스</b> 인쇄, 사진,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b>이강연 CPA</b> <b>미카엘</b> 770-279-2770 info@mkcpa.com	<b>리 장례식장</b>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b>PIWC Group Agency</b> 자동차, 집,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b>SB 건축&amp;철공</b>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b>오즈 냉 동</b>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	--	--	--	---	--

 <b>로렌 배 보험</b>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b>배용자 루시아</b> <b>보험 금융</b>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미소 치과</b> <b>남상우 시론</b> <b>남수진 세실리아</b>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b>오약국</b>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
---	---	---	--

 <b>스마일원치과</b> 김세희 소화테라사 김상운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b>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b>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정토니 안토니오
---	---

 <b>메디케어 / IRA / 연금</b> <b>생명보험 / 오바마케어</b>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b>스완니 교정 치과</b>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b>확실한 카이로프랙틱</b> <b>더조은 척추</b>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b>박찬규 레오</b>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	--	--

 <b>MASTER REALTY</b> <b>김선민 요안나 부동산</b> 404-285-6472 	 <b>KW KELLERWILLIAMS</b> <b>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b> Juliana OH 678-908-4945 
---	---

 <b>김옥경 에밀리 부동산</b> M. 770-912-8282 O. 404-843-2500 	 <b>조앤리 아네스 부동산</b>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b>명품 중식 레스토랑</b> <b>만 천 흥</b>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	---	--

 <b>VINEYARD REALTY</b> “부동산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 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 김 770-634-5646 	 <b>TOP 조경</b> Lawn Maintenance <b>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b>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	---

<b>정승욱 미카엘 변호사</b>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b>RIVERBEND 리버밴드 오토</b>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b>So Good (Bridal&amp;Beauty)</b>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	---	--

<b>주보 광고 문의</b> kmccga.bulletin@gmail.com 	<b>GIFTS</b>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	---	--

# 이틀린티 주보



**이틀린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2년 8월 28일  
 NO.2162  


---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josephnam2011@gmail.com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농가의 결혼식〉, 피터 브뤼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 14,13-14)

## 연중 제 22주일

- 입당송** 시편 86, 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  
 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 제 1독서** 집회서 3,17-18.20.28-29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 화답송** 시편 68, 4-7. 10-11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 2독서** 히브리서 12, 18-19. 22-24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음** 루카 14, 1.7-14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영상제송** 시편 31, 20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7-14)

- 1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 )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 )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 )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11 누구든지 자신을 (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 )이는 높아질 것이다.”
  -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 )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노민 이들을 초대하여라.
  -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 ) 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겪었을 법 합니다. 거래처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할 때 나 혹은 직장 상사 분들을 모시고 차에 탈 때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해야할 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 지 한번쯤은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더욱이 유교 사상이 600년 이상을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선 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조직에서는 상하 관계를 대변해 주지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지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선 권위 주위가 뿌리를 내리고 “니 내가 누군지 아니?”로 대표되는 갑질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몇 년 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기억나시죠? 단지 들킨 죄조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선 없을까요? 저도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척 품을 잡았었죠. 허면 우리고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할까요? 봉사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로 사이가 틀어지고, 단체장은 마치 군림하는 듯이 행동하다가 단체는 깨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당 사제들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 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 하곤 달라.” 이런 우월감이 마음 깊숙이 뿌리를 틀고 있기에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요? 특히나 생업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이민 사회에선 공명심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좋고 번듯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라”라고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모두가 너의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네가 바라는 칭찬 받고 싶고, 가진 것 자랑하고 싶고, 남 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고, 스스로 잘 했다고 생색내 보고 싶고.. 그러한 유혹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편하게 쉽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열쇠임을 전해 주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을 Accept 하는 데는 Challenge가 따릅니다. 우리의 본능과 역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죠. 하지만 비운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지만 그렇게 알 했습니다. 오히려 우습지도 않는 인간들한테 당하고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지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 | 성 활 |

하루 한 가지라도 자신을 낮추는 노력을 실천해 보고 예수님과 대화해 보면 어떨까요?

### 8월 28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축일



북아프리카 히포의 성인 주교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는 수많은 교부들 가운데서 사상으로나 필력으로나 가장 빼어난 분이시다. 그는 학문적으로 완숙한 시절 약 스무 해에 걸쳐(399~420년) 「삼위일체론」을 썼는데, 자신의 역부족을 절감한 나머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앞에서 소개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마무리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위격(位格)으로 세 분이시오 실체(實體)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더는 논할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 저 간절한 기도를 바쳤다.

이 기도문과 어울리는 전설이 전해온다. 어느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을 쓰다가 너무도 막막해서 히포(지금의 알제리 공화국 안나바 항구) 앞바다 지중해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덩이에 붓고 있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괴이하게 여겨 아이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이 구덩이에 지중해 물을 다 담을 작정이에요,」라고 대꾸했겠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건 당치도 않다,」고 하니, 「주교님께서 궁리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는 더 어렵지요,」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 기도문을 풀이할 필요가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대문호인지라 글을 쉽고 분명하고 구수하게 쓸 줄 안다. 그래서 굳이 해설할 필요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사족을 달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에서 배운 신조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는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다,」 그는 신앙과 지성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골라잡지 않고, 둘 다 보듬을 줄 아는 지각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는 믿고 알고, 알고 믿으려는 신앙인이요 지성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면 지성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느님은 초월이시니까. 불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느님은 공(空)이시니까. 하느님을 생각할 때면 조금 아는 것 말고 온통 모르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애절히 간구했다.

「임 앞에 제 앞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 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임께서 닫아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톨릭신문, 2005년 8월 7일, 정양모 신부(한국교부학연구회·성공회대 초빙교수)]

### -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 - “두드리면 열어주소서”

힘자라는 데까지  
임께서 주신 힘 자라는 데까지  
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임이시여 저의 주님이시여  
제게는 돌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뵈게 하신 임이옵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뵈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옵기에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들어주소서

임 앞에 제 앞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임께서 닫아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삼위일체론」15권 51항

#### 큰사람 아니 < 루카 14, 1-7 >

베영길 베드로 신부

나이가 들어  
어른이 아니듯,

높은 이라고  
다 어른이겠는가.

나이 들며,  
높은 자리를 찾기보다.

낮은 자리라도  
사람을 많이 담을  
넉넉한 그릇으로  
남고 싶다.





8월 21일 주일학교 개학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강다인 박리호 심리아 이서진 이주하 최찬의  
 김서윤 박시윤 심지우 이 선 이채은 허수인  
 김소현 박예은 안상준 이승우 정아린 홍지아  
 네오미 박태야 양태인 이유평 최서아 홍지애  
 도이삭 배윤슬 오준서 이윤지 최서정 Hugo Chung-Henson  
 민경태 배이트 오준우 이윤후 최선의 Leonard Chung-Henson  
 민서연 석유진 유수아 이제후 최윤의

중등부


김서중 양다해 장 린  
 김아론 이다은 정범진  
 도렉스 이루이스 최지오  
 박시은 이서정  
 박인아 이주현  
 양다원 이지윤

고등부

강 진 도현진 안상우 이하윤 최예은  
 권대빈 박시현 양다현 이한승 허상경  
 권태오 박채호 오준현 장근우 허영준  
 김매튜 서효민 이대현 장재은  
 김태환 생리디아 이아람 조소현  
 김태훈 소현교 이여은 조주현  
 남소호 소현서 이예준 최미나


8월 20-21일 구역장 워크샵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한국어



ENGLISH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해 ‘와서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올해는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경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씀이 되풀이되고,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 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은 귀를 통해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경청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대화와 소통에서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사람을 직접 만나 공정하고 당당하며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그러나 옛듣기와 같은 나쁜 경청도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옛듣고 엮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더욱 생겨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경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청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사회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이 쌓여 만들어진 ‘가짜 정

보의 유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목 활동에서도 말하기에 앞서**

**‘듣는 귀의 사도직’은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애덕의 행위입니다.**

합창단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각각의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 노래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의 친교에 참여합시다.

시노드 여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경청하는 큰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실제로 친교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형제자매들 사이의 상호 경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우리도 함께 이루는 친교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어우러지는 교회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성령께서 작곡하시는 전체 화성을 드러내는 선물로서 환영하며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 - <https://cbck.or.kr/Notice/20220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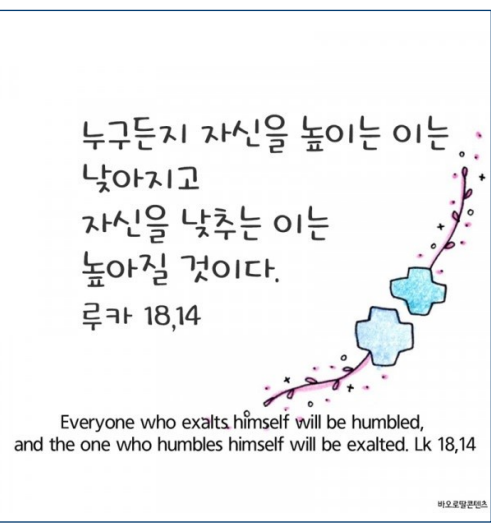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21일 (연중 제21주일)			
교중미사(10:30am)...	213명	주일헌금 .....	\$ 4,341.00
아침미사(08:30am)...	78명	주일헌금(온라인) ...	\$ 70.00
영어미사(12:15pm)...	79명	교무금 .....	\$ 6,690.00
특전미사(05:30pm)...	63명	교무금(온라인) .....	\$ 200.00
미사참례 총 .....	433명	감사헌금 .....	\$ 0.00
		성물방 .....	\$ 118.00

교무금 명단				
김봉섭 (8)	나영숙 (8)	변성주 (6~8)	이광자 (8)	정용선 (7~9)
김상균 (7~12)	박근우 (8)	손상규 (8)	이덕환 (8)	주옥녀 (8)
김영혜 (8)	박남준 (8~12)	송희빈 (8)	이상호 (8)	주인국 (8)
김중욱 (8)	박재애 (8)	신욱기 (8)	이석균 (8)	최옥란 (8)
김향순 (8)	박지은 (7~9)	안현웅 (7~8)	이세철 (7~9)	
김현길 (8)	박찬규 (8)	윤성진 (8)	이충자 (8)	
김호진 (7)	박해영 (8)	윤형록 (1~12)	임혜수 (8)	
김희연 (6~8)	방남규 (7~8)	이경우 (8)	장해선 (8)	

-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봉헌**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문명재	이동춘	전 홍
강용조	박두환	이복화	정용선
곽흥배	배정희	이봉조	정지윤
김남우	백현숙	이수진	정창래
김루시아	손철영	이승구	조보현
김영철	서상희	이주미	조성환
김일환	서재욱	이창호	지승남
김태규	서혁규	이홍규	차영수
김향순	설재규	이현두	최동순
김홍섭	송용덕	이현욱	한성인
김 훈	양재준	장민재	
남상우	오상수	전근섭	



**본당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2022년 7월 24일(일) 부터 적용)

Covid-19 위험도 증가에 따른 유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본당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에틀랜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제26대 사목회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줍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https://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AA 기금	
2022년 8월 21일 (연중 제21주일)	
교구 할당액 .....	\$ 54,300.00
달성률 .....	87.1%
누계 약정액 .....	\$ 22,500.00
누계 납부액 .....	\$ 47,293.00
금주 납부액 .....	\$ 1,465.00

2022 AA 기금 납부자		
김상국	박해영	이석균
김상균	유성렬	이종길
김상순	윤성진	

**2차 헌금**  
교구 2차헌금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이 9월 3일 (토)/4일 (일)에 있습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8/27 (토) 오후 5:30	유성희	서현규 곽예원	-
8/28 (일) 오전 8:30	이숙자	최혜두 정지연	김태훈 최지오
8/28(일) 오전 10:3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최예은 전지우 도렉스
8/28 (일) 오후 12:15	Deborah	오준현 성리디아	안상우 양다현
9/3 (토) 오후 5:30	고승찬	윤 결 김경민	-
9/4 (일) 오전 8:30	서정원	윤준호 윤영미	
9/4(일) 오전 10:30	박줄리	최창희 김선민	
9/4 (일) 오후 12:15	Mary	Sara 김매튜	-

본당 캘린더	
9월 3일 (토)	• 성모 신심 미사
9월 4일 (일)	•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9월 11일 (일)	• Bridge Mass • 꾸리아 월례 회의 • 성서 봉사자 회의
9월 18일 (일)	• 본당의 날

**KMCC Bridge Mass**

- 일시: 9월 11일 (일), 4pm
- 장소: 소성당
- 대상: Young Adult (영어권 및 한국어권, 청년들과 기혼자 모두 참가 요망)
- ▶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 문의: 도효준 (404-939-3646)

**주일학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일시: 8월 28일 (일), 10:30am
- 장소: 소성당

**'가을 맞이 꽃 마당, 앞마당'**

- 일시: 9월 11일(일), 12pm
- 장소: 113호
- 대상: 꽃과 푸른잎을 사랑하고 발을 기쁘게 뭉든 분
- 문의: 서미영 아녜스 404-610-0057

- 행사 및 모임 안내**
- ◆ 구역장 회의  
일시: 9월 4일 (일), 11:30am, 112호  
문의: 김영경 (770-676-8672)
  - ◆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 9월 11일 (일), 12:30pm, 소성당  
문의: 왕미카엘라 (352-359-4283)
  -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9월 11일 (일), 12pm, 112호  
문의: 이혁륜 (404-518-7373)
  - ◆ 30-40대 부부 모임  
일시: 9월 11일 (일), 1:30pm, 친교실  
문의: 이시훈 미카엘 artsillyb@gmail.com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gca.youngadult@gmail.com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일요일	• 8:30am • 10:30am(교중미사) • 12:15pm(영어미사)
토요일	• 5:30pm(특전미사/청년)
화, 금	• 12:00pm
수, 목	• 7:30pm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12:00pm
Bridge Mass	1st Sunday 4:00pm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시간 |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요한 복음 산책 5권~7권
- 일시: 9월 8일 (목) 6:00pm - 7:0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이혁륜 404-518-7373 임혜수 404-246-8142

**2022-2023 예비자 교리반**

- 수업일정: 2022년 9월 11일 - 2023년 4월 9일  
매주 일요일 9am
- 수업 외 일정: 본당 입교식/선발식(교구주최 받아들이는 예식)/ 수도원 방문/ 수련식(일일포정)/ 세례 견진 성사(부활절 대미사중)/ 환영식
- 접수: 사무실 (8/31 까지)
-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서미영 404-610-0057

**본당 알림**

-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례회에 팔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404-933-8233)
- 알루미눔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다 (901-832-3306)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팔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연도책은 성당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상반기 후보 광고비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 관련 문의 : kmcgca.bulletin@gmail.com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담가능)

**복사단 신입 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를 한 8학년까지 주일 학교 학생들  
문의: 소 루도비코(404-434-8163)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리아)
박정자(데레사)	채종현(아오스당)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이기산(스테파노)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Young Adult Group**

**WELCOME MASS**

SEP 10, 2022 | 5:30 PM

환영 미사 이벤트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이벤트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신자와 비신자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이드 및 문의  
윤 결 바오로 770-331-5272  
최수연 엘리사벳 770-328-0796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9월 18일 (일) 12:00pm - 3:20pm
- 장소: 친교실
- 내용: 장기자랑, 놀이마당(어린이는 주차장에 서 별도 놀이마당 운영), 퀴즈대회, 경품추첨, 구역 및 단체 사진 전시
- 장기자랑
  - \* 대상: 각 구역별 1개팀(인원제한없음),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성당내단체
  - \* 내용: 제한없음(5분 이내)
  - \* 신청: 8/27 까지 참여인원과 내용 제출 (각 구역은 총구역장, 개인 및 성당내단체는 친교분과장)
- 문의: 남기원 요한 404-966-1919

\* 행사 참여 여부는 자율에 의한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 일시: 9월 4일 (일)
- 장소: 소성당
- 진료시간: 12:30 ~ 2:30pm
- 진료 과목 : 내과 지승남  
비뇨기과 전홍  
한방과 양경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 진료 피검사는 매일 실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무료 참여  
당뇨 검사 진료시 6시간 공복유지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를 해 주실 의사 선생님과 자원 봉사자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승남 470-747-2000 서병익 706-583-4096